

‘低유가 시대’ 지역경제 희비 기아차·한전·항공업 ‘활짝’ 여수산단 정유·화학 ‘시름’

사상 최고치의 유가하락이 연일 이어지면서 지역경제에도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수출중심의 자동차나 타이어 등 제조업은 유가 하락에 매출 증대 등 실적 개선 기대를 거는 반면, 정유 및 석유화학 업체들엔 치명타가 되고 있다.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도 유가 하락이 자동차 수요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유류비 감소에 따라 중대형 차급의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중이다.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항구까지 실어나르는 선적비용 등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어 향후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주요 수입품인 석유를 원료로 한 합성고무의 가격이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하지 않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조업 특성상 물류비를 아낄 수 있는 데다, 자동차 산업의 호조에 따라 반등이 기대되는 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석유를 직접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은 희색이다. 한국전력은 발전소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가격 하락으로 수혜를 입고 있다. 원가절감이 가능해진 것.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아시아

나항공도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기업으로 꼽힌다. 항공업계는 전체비용 중 35% 이상 차지하는 유류비가 대폭 줄면서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지난 3개월간 무려 90.15%나 올랐다.

반면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몰려있는 정유·석유화학업체는 국제 유가 급락으로 치명타를 맞았다. 국내 정유 4사인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 등의 정유부문 적자는 지난해 3분기까지 9711억원이었으나 4분기 중 유가폭락으로 적자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업계도 시름하고 있다. 정유사에서 원료를 제공받기 때문에 원자재 하락에 따라 비용 절감 효과도 있지만, 제품 가격마저 하락해 정유사에 버금가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주유소 역시 뒤통수를 맞았다. 유가 급락으로 치열한 저가 판매 경쟁이 펼쳐지면서 휴·폐업하는 주유소도 늘었다. 한국주유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전남 지역에서 휴·폐업한 주유소는 70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광주와 전남에 등록된 1200여 개의 주유소 중 6%가 넘는다는 것.

박진표기자 bigkim@kwangju.co.kr

유치원 CCTV설치 90%까지 확대

교육부·문체부 업무보고

교대·사대 입시 인정평가 반영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

정부는 유치원에 대한 폐쇄회로(CC)TV 설치 비율을 올해 전체 유치원의 80%, 내년에는 90%까지 확대하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 대책을 조만간 내놓는다. 또 향후 교대나 사대 입시에서는 수험생 인정 평가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에서도 금연이 추진된다. <관련기사 2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는 22일 ‘국민행복’ 분야 올해 업무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작년 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교대와 사대를 중심으로 대학 입시에서 인정평가 확대 반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중학생이 한 학기 동안 자필시험에 대한 부담없이 토론, 동아리, 진로탐색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는 올해 전체 중학교의 70%까지 확대 실시되고 공공기관 등에 학생들의 직업체험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진로교육법도 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상반기안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고, 당구장 등으로 금연구역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 시 최소 3개월~1년 전에 채용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민간기업도 자율적 참여를 권고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공항 승객 80% KTX로 갈아탄다



손흥민 “바로 이맛이야”...한국 아시안컵 4강

22일 호주 멜버른 레프트필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 AFC 아시안컵 8강전 한국 대 우즈베키스탄 경기. 손흥민이 연장 전반 끝을 성공시킨 뒤 환호하고 있다. 한국이 연장전 승부 끝에 우즈베키스탄을 2-0으로 꺾고 4강에 진출했다. >관련기사 20면 <연합뉴스>

한국교통연구원 전망

호남고속철 개통 ‘교통 빅뱅’ 예고

오는 3월 호남고속철도(KTX·서울 용산~광주 송정)가 개통되면 광주공항 이용객이 최대 80%까지 줄어들고, 고속버스 이용객도 급감하는 등 교통지형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오는 3월 호남선 KTX개통으로 광주~서울간 이동시간이 1시간33분으로 종전보다 1시간6분이 단축된다. 이에 따라 항공기 이용객이 대거 KTX로 이탈하면서 광주~김포 노선 항공편 감축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서울~광주 구간의 고속버스 승객도 KTX로 갈아탈 전환율도 37.6%로 나타났다. 고속버스 이용객 100명 가운데 37.6명이 버스 대신 KTX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김포간 노선을 없애고, 광주~인천간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항공업계의 비협조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항공편이다. 광주~서울 구간의 항공기에서 KTX 전환율은 53.5%로, 항공기 이용객 100명 가운데 53.5명이 항공기 대신 KTX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김포간 노선을 없애고, 광주~인천간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항공업계의 비협조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최진석 교통연구원 철도교통본부장은 “광주~서울 노선의 항공 수요가 실질적으로는 80% 정도 줄어들 수 있다”면서 “2004년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이 개통

됐을 때 대구 항공수요의 약 80%가 KTX로 전환해 이듬해 바로 김포~대구 항공편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최 본부장은 “그나마 올해는 KTX 좌석이 부족해 (광주~서울 노선) 항공기의 수요가 일부 있겠지만, 수서발 KTX가 1년 뒤 개통되면 좌석 여유가 생겨 항공 수요는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광주~김포 노선을 운영하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뿐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광주~김포 노선에서 각각 1일 2회와 1일 5회 운항하고 있다. 이들 항공사는 일단 현재까진 운항 감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한국공항공사와 협의해 탑승률 하락을 막을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노선을 줄이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현재로서는 노선 조정에 대해 결정할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부선 KTX 개통 후 6개월간 해당 지역의 항공 수요가 50% 정도 줄었다”면서 “운항편 축소 등 조정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고속 시외버스에서 KTX로의 전환율도 37.6%로, 연간 247만5488명이 버스 대신 KTX로 갈아탈 것으로 분석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www.gstec.or.kr
과학기술인들의 든든한 협력자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행사, 세미나 등 다양한 시설 장비 및 레스토랑, 헬스, 사우나 등 각종 편의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 대규모 국제회의실, 대연회장, 객실 등 호텔식 규모로 운용 (광주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 30여년의 역사와 호남최고의 명성이 있는 신양파크호텔에서 위탁운영
 문의/예약 062) 609-0500~1



미래를 위한 창조에너지, KEPCO의 신성장동력이 만듭니다!

대한민국 작은 마을이 에너지 동력원이 되어 지구촌 구성원까지 에너지로 소통하고 기술·인력,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합니다. 녹색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한국전력의 신성장동력이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과 함께 지구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창조에너지를 만듭니다

시장으로, 세계로, 미래로—
한국전력공사

경제
 37년의 역사,
 30년의 성장